

광주 택시요금 5년 만에 ↑ 기본요금 2800→3300원

물가대책위 심의 의결...내년 1월 시행

광주지역 택시요금에 5년 만에 인상된다.
광주시는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가 의회 의견 등을 청취한 뒤 상당한 택시요금 인상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새 요금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광주지역 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형택시(816대)의 경우 기본요금(2km)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7.9% 오르고, 거리와 시간도 145m·36초당 100원에서 134m·32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모범·대형택시(9대)는 기본요금 3900원에 156m·36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광주에서는 1998년 3월 이후 2002년 4월, 2005년 12월, 2008년 12월, 2013년 3월 등 모두 5차례 택시 요금이 인상됐으며, 인상률은 11.7%~22.51%에 달했다.
현재 특·광역시 택시 기본요금은 부산이 3300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과 인천은 3000원, 광주와 대구, 대전, 울산은 2800원이다. 서울은 3800원으로 인상을 추진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3년 택시요금이 오른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이용객 감소 등 3중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요금이 5년째 동결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택시 업계 경영 개선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면허택시는 일반 택시 76개 업체 337대와 개인택시 4795대 등 8172대에 이르며 이 중 8163대는 중형택시다. 운전자는 법인 4000명과 개인 4795명 등 8795명에 달한다. 1일 운행대수는 법인과 개인 합쳐 6037대다.

서은홍 기자

전남도, 내년 SOC분야 국비 1조2121억원 확보

3년 연속 1조 넘어...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도가 3년 연속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국가예산을 1조원 이상 확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 SOC분야 국가예산 1조2121억원을 확보해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고예산 총액 6조8104억원의 17.8% 규모로,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선 액수다.

또 올 예산 1조416억원보다 1705억원(16.4%)이 늘었고 당초 정부 반영액과 비교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4.0% 증액된 것이다.

지역 현안사업 SOC 사업 중 최대 성과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2800m→3200m) 설계비 5억원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조기 완공을 위한 보상 및 착공 사업비 680억원이다.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초석을 마련한 셈이다. 이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회와 세계 최고의 안전대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던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의 경우 철도기본계획 수립에 10억원을 확보, 88년만에 현대화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1930년) 이후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은 탓에 호남지역 낙후의 상징으로 비쳐왔다.

남해안철도(목포~보성)와 광주~완도간(1단계) 고속도로 사업도 각각 1000억원과 1138억원이 증액돼 국가 기간교통망 확충에 확충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별교~주안 3공구 계속사업 35억원과 동면~주안, 압해~송공, 북평~북일, 경전선 전철화(진주~광양) 4개 사업에 67억원을 2019년 신규 착공 사업비로 확보했다.

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재재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458억원을 추가 확보해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압해~화원, 화태~백야 여수~남해), 전라선 고속철도 등은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SOC 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지역균형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동구, 2018년 자활사업 보고대회 개최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가 최근 자활사업 참여주민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자활사업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YMCA 무진관에서 개최된 이번 보고대회는 올해 자활성과와 내년도 사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사업성과 보고 ▲자활유공자 시상식 ▲자활참여자 화합을 다지는 어울림한마당 순서로 진행됐다.
그동안 동구는 동구지역자활센터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특히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을 연계하는 한편, 대상자들의 취·창업을 집중지원하며 저소득가정 자립의지 고취와 자활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서구 상록도서관, 종합자료실 아간에도 문연다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이 새해부터 종합자료실 운영을 밤 10시 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상록도서관은 하루 평균 이용객만 3백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평일에는 오후 6시에 문을 닫았던 터라, 그 동안 직장인들은 주말이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평일 낮시간대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민선7기 들어 서구는 종합자료실 운영 연장을 검토해 왔고, 내년 1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상록도서관 종합자료실은 휴관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남구, 내년에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지원

광주 남구는 기존의 주택과 온실에만 국한됐던 풍수해 보험을 내년부터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남구는 17일 "2019년부터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위험을 준비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2019년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 근로자 수 미만의 사업자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34% 이상을 지원받아 한해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북구, 2018 마을만들기 성과 공유

광주 북구가 올 한해 동안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 북구는 "18일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활동가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마을(인)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과보고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과 마을활동가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면서 마을공동체간 소통과 화합 및 북구 마을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 초등학교생이 만든 아동안전지도 활용

광주 광산구가 초등학교생이 만든 '아동안전지도'를 활용해 신기초등학교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재설치하고, 학교 주변 보안등을 정비했다.

아동안전지도는 7월 초등학교생들이 교사·학부모·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학교 주변을 조사하고, 이때 발견한 위험·안전 요인을 지도 위에 표시한 것. 올해 지도 제작에는 마지·세별·성덕·송정동·신가·인 등·평동 초등학교 학생 156명이 참가해 자기 학교 주변의 어두운 곳, 차가 빨리 달리는 도로, 비행청소년 집합 장소 등을 표시하고 총 29건의 안전위험요소 개선을 광산구에 건의했다.

광산구는 어린이들의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10월부터 광산경찰서와 아동안전지도 상 위험 지역 순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아동대상 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임형택 기자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 최고의 안전·평화대회로”



광주시는 17일 이용섭 시장이 중국 항저우시에서 열린 세계수영대회에 참석해 북한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한 뒤 내년 광주대회 참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 항저우 세계수영대회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의 내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최고의 안전·평화대회로 치를

“단 한건의 사건사고도 없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처럼 광주대회는 세계 최고의 안전대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내외신 기자들은 북한의 참가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시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극심한 갈등을 지속해온 남북한이 공동선수단을 구성하고 북한의 응원단과 공연단이 광주에 온다면, 갈등이 아닌 화합, 분열이 아닌 통합의 감동 이야기를 지구촌에 전할 것이다”며 “한국 정부와 FINA가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중국 항저우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장과 감독, 선수들 만나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개최된 FINA 주최 갈라에서 이 시장은 ‘광주로 초대’라는 영어 연설을 펼쳐 FINA 관계자와 각국 수영 선수, 지도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시장은 “항저우에서 꽃피운 우정과 열정이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더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우야 한다”며 “내년 광주 대회의 감동을 함께 느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이용섭 시장 중국 항저우서 세계 미디어 기자회견 북한선수단에 광주대회 참가 요청...갈라행사 연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이 시장은 18일 오후 5시(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시 올림픽파크센터에서

이 시장은 “광주는 FINA와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18년 단 1869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 계 연(330308-2661416)
최 후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44, 201동 1118호 (대광로제비암 2차)

위 망 이계연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12월 18일

공 고 인 : 김용기.
주 소 : 광주 북구 황계로55번길 11, 4동 1004호 (운암동, 삼호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8년 12월 10일
공고기간 : 2018. 12. 18~ 2019. 2. 19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 인 설 립
- 기 장 대 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 업 진 단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일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